

2023년 1월 / 제3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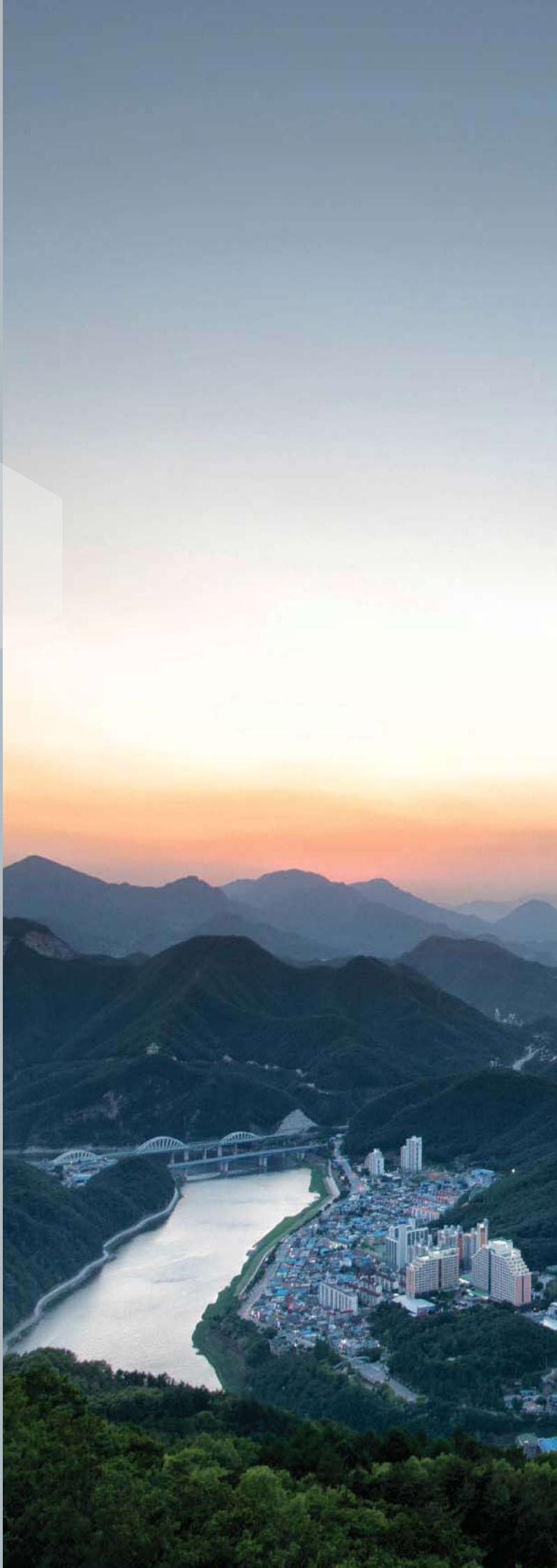
# 의정소식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



단양군의회

2023년 의장 신년사 -----	02
2023년 의원 신년사 -----	05
2022년 의정 결산 -----	11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현황 -----	13
의원발의 조례안 -----	14
건의문 채택 -----	17
5분 자유발언 -----	20
군정질문 -----	33
단양군의회 모의 의정 -----	35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36
신문스크랩 -----	45
2023년 회기운영 계획(안) -----	49
제9대 단양군의회 의원 현황 -----	50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



조성룡 단양군의회 의장

“우리 단양 곳곳에서  
희망과 도약의 기운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부푼 기대와 희망 속에 2023년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우리 단양 곳곳에서 희망과 도약의 기운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해 7월,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를 기치로 제9대 단양군의회가 힘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동안 9대 의회는 3만여 군민의 바람을 군의정에 오롯이 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지방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의정’ 실천을 중심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존중하고 협력하는 ‘협치의정’,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정’을 실현하고자 온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면서 금년 한 해에도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3만여 군민의 민의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어느 날, 지역의 한 주민께서 ‘현장에 가면 답이 보인다.’라는 리본을 단 돌 하나를 제게 주셨습니다. 혼자 들기에는 무거웠습니다. 제가 받은 돌은 9대 의회 의원 7명 모두의 지혜와 역량으로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야 할



‘우리 단양의 8개 읍면이요, 3만여 군민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다시금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가짐으로 군민 누구나 소외됨이 없는 복지정책에서부터 군정의 크고 작은 현안 사업에 이르기까지 8개 읍면 구석구석을 직접 발로 뛰며 민생현장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답을 찾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고 8개 읍면이 고루 잘 사는 지역발전을 군정에 제대로 담아내겠습니다.

###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선진 지방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9대 의회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선진 지방의회는 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견인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만들어가는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의회’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군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들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소통을 더욱더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하거나 군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의원 개개인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과 시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전문지식 함양과 자질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 3년여간 우리의 일상을 괴롭혀온 코로나19 팬데믹 시련의 끝을 지나며 엔데믹으로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는 너무나 확연합니다. 무엇보다 3만여 군민의 삶이 하루하루 나아지고 행복 또한 충만해지도록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우리의 일상이 지난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짐은 무겁고 가는 길은 멀기만 합니다.

동주공제(同舟共濟),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는 뜻으로, 이해와 환란을 같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군의회와 3만여 군민이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냅시다.

저희 군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동주공제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군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 영민함과 강한 뒷발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흑토끼처럼 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소망하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 1. 1.

조성룡 의장



김혜숙 부의장

“부족함을  
노력으로 채우며  
모든 군민이  
행복한 단양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부푼 희망과 기대 속에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지난 2022년은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6·1 지방선거에서 단양군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의회에 입성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나 202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초선으로서 배우고 공부해야 할 것이 많지만 군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 소중한 자리인 만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민 가까이에서 함께 고민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지해 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민심의 진의를 살피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받아들이는 소신과 원칙으로 성숙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부족함을 노력으로 채우며 모든 군민이 행복한 단양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윤보영 시인의 ‘향기 나눠주기’라는 시를 통해,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다짐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 –향기 나눠주기– 윤보영

한손에 용기를 들고 다니다가 힘들어 하는 누군가를  
만나거든 그의 손에 쥐어주세요

주머니 속에 희망을 넣고 다니다가 좌절하는 누군가를  
만나거든 그의 가슴에 전해주세요

입속에 사랑을 담고 다니다가 상처받은 누군가를  
만나거든 아낌없이 나눠주세요

가슴속에 기쁨을 안고 다니다가 슬픔에 빠진 누군가를  
만나거든 살며시 건네주세요

마음속에 행복을 품고 다니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껏 주세요

###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계묘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게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어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김 혜 숙 부의장

장영갑 의원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검은 토끼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밝고 힘찬 기운이 군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현장을 다니며 많은 주민분들을 만나 개선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의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군민 모두의 바람을 충족하지 못해 송구스러울 때입니다.

군의회 의원으로서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늘 변치 않는 자세로 군민 여러분의 행복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고자 노력했던 점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년 새해, 우리 단양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으로부터는 벗어나겠지만 경기침체의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는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단양강과 단양역, 수양개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개발과 수상레저 사업, 그리고 내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군민의 건강을 책임질 보건의료원 건립 사업 등 많은 현안 사업들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를 대비하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지원과 견제, 감시는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들이 우리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23년 새해,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장애물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하여 불러 주시면 언제든지 힘차게 달려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요즘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와 침체된 경제 상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위기와 기회는 항상 함께해 왔고 우리는 늘 위기를 극복하며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왔습니다. 2023년도 바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하는 2023년 한 해, 군민 모두의 가정에 복된 기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 만사형통(萬事亨通)하시는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장 영 갑 의원

**김영길 의원**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많은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했던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 해가 지나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단양군의회 의정 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3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는 끝날 듯 끝나지 않으며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2022년은 사회·경제적, 심리적으로도 매우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인내하며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새날은 우리에게 희망과 설렘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 확고한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9대 단양군의회는 초심을 잊지 않고 ‘군민과 함께하며 군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활동하는 의회’,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생산성 있는 의회’를 지향하면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단양군의회는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군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큰 틀 아래 지역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선진 자치 의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코로나19 걱정 없는 평범한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함께 웃으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 영 길 의원

강미숙 의원

“앞으로  
주민분들을  
찾아뵙고  
그동안 못 나눈  
얘기들을 나눌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 항상 제 마음속에 함께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군민 모든 분이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 드립니다.’

어느 해 보다 빨리 壬寅年이 저물고 癸卯年이 달려오듯 달력을 바꾸어 놓습니다.

2022년은 다른 해 보다 유난히 빨리 지나간 듯합니다.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도 숨죽이는 듯하고,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6·1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여 군정을 맡기며 군민은 다시 새로운 희망을 꿈꾸어 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정치 혼란, 사건·사고,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때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지금처럼 모두가 한마음으로 보다나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한발 한발 더 나가야 할 것입니다.

### 항상 제 마음속에 함께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지난 6·1지방선거를 통해 ‘비례대표의원’이라는 명칭을 떼어버리고, 흔히 말하는 학연, 지연, 가까이에 일기친척 하나도 없는, 더구나 여자인 저를 매포·가곡·여상천·영춘을 지역으로 하는 나 지역구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큰절을 올립니다.

지난 여름부터 가을, 지금까지 유난히 바쁜 일정으로 주민 여러분을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에 늘 죄인

같습니다. 앞으로 짬짬이 주민분들을 찾아뵙고 그동안 못 나눈 얘기들을 나눌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바람이 불니다. 멈추지 않는 바람도 없습니다.’

‘꽃이 피어있습니다. 지지 않는 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친구도, 젊음도, 심지어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들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비바람이 분다고 하여, 지금 내 시간이 힘들다고 하여 움츠려들지 맙시다.

조금만 지나면 어느새 비는 그치고 지금 이 고단함이 추억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믿음과 신뢰,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의원으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묘년(癸卯年)에도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안주(安住)라는 감미로운 유혹과 변화라는 험난한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원이 되도록 여러분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군민 모든 분이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드립니다.

강 미 숙 의원

**오시백 의원**

“**단양군의회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군민의  
손과 발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존경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군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밝은 미래를 기다리는 견고한 믿음이 차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예전의 일상을 되찾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 **단양군민 여러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는 전에 없던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9대 단양군의회가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라는 의정방침 아래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단양군의회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군민의 손과 발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복잡다단하여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일도 결국은 사람이 시작한 일이고, 사람이 끝맺음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통’ 이야기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출발점입니다. 늘 열린 마음으로 군민과 소통하여 군민의 뜻이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생활의 편익은 한 인간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에 발생한 이태원 사태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종체적인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군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살피고 또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개 읍면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크고 작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기에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발전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나아가 단양군 전체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단양군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그동안의 시름을 모두 털어버리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하고 또 기원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군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며 ‘일하는 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 시 백 의원

이상훈 의원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2023년 변화와 도약의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를 이루고,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특히, 지난해 어려움이 많았던 군민 여러분이 환하게 웃으시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인내하며 방역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내 이웃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주신 군민과 방역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굳은 의지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예전처럼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다시금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제9대 단양군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보다 막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주민 주권을 구현하고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은 물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과 협치를 통해 진취적 비전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단양군의회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지역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단양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지수를 높이고, 미래 비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자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훈 의원

2022년도 단양군의회  
의정활동 결산

## - 제9대 의회 개원,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의정활동 비전제시 -

2022년은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낸 한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 수가 2500만 명을 넘어서며 인구의 50% 이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오랫동안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잘 참고 견뎌 준 덕분에 차츰 예전의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유동 인구가 늘고 3년간 멈췄던 행사와 축제가 하나둘 개최되며 사회 곳곳에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국민 모두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안타까운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떨치고 더욱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 동안 단양군의회는 역대 가장 많은 재선의원과 여성의원으로 제9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개원하고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라는 새로운 의정방침 아래 민생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9월 19일, 그동안 국가 발전 축에서 소외되었던 단양과 충북의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10월 7일에는 '중앙선 KTX 이음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과 단양역 무정차 통과 열차 정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단양군민뿐만 아니라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개선해줄 것을 관련 부처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11월 7일에는 '대강면 두음리 석회석 광산개발 반대 건의문'

통해 청정 단양을 지키고 광산개발로 인한 여러가지 피해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남한강 단양호에서 수상 레저 · 스포츠가 활성화되는 단양 관광의 트랜드 변화에 맞춰 의회 차원에서 「단양호 119 수난구조대 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충북시 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단양호 119 수난구조대 배치」를 공론화하였습니다.

###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이어갔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총 8회 92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여 70건의 조례와 17건의 공유자산관리계획을 심사하였고, 3차례의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129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21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을 요구하였고, 37개소의 주요사업장을 현지 점검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폈으며, 49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과거 유럽인구의 1/3을 죽음으로 몰고 간 흑사병이 르네상스 시대를 연 원동력이 된 것과 같이 코로나 이후 제2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합니다. 이는 또 다른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이어져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제9대 단양군의회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이끄는 선진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존중하고 협력하는 '협치의정',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의정',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도  
단양군의회 회기  
운영 현황



회기별	활동기간	주요 처리 안건
제306회 임시회	2. 11. ~ 2. 21.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li><li>•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li><li>•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 계획 청취</li><li>• 조례안심사(2일 / 7건 ⇒ 원안3, 수정4)</li></ul>
제307회 임시회	3. 22. ~ 4. 1.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4일 / 5건 ⇒ 5건 포함)</li><li>• 예산결산심사(3일 / 2022년도 제1회 추경)</li><li>• 조례안심사(2일 / 7건 ⇒ 원안4, 수정3)</li><li>• 단양클레이사격장 민간위탁 동의안</li><li>•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li></ul>
제308회 임시회	7. 4.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9대 단양군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li></ul>
제309회 임시회	7. 19. ~ 7. 27.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22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li><li>• 조례안심사(2일 / 9건 ⇒ 원안6, 수정3)</li></ul>
제310회 정례회	9. 19. ~ 10. 7. (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단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li><li>• 예산결산심사(3일 / 2022년도 제2회 추경,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li><li>•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2일 / 5건 ⇒ 5건 포함)</li><li>•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개선 사항 21건)</li></ul>



회기별	활동기간	주요 처리 안건
제311회 임시회	10. 18. ~ 10. 27.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사업장 현지점검 (6일 / 37개 사업장 점검)</li> <li>조례안심사(2일 / 14건 ⇒ 원안11, 수정3)</li> </ul>
제312회 임시회	11. 7. ~ 11. 11.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양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li> <li>군정질문(49건)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li> </ul>
제313회 정례회	11. 24. ~ 12. 19. (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2일 / 3건 ⇒ 1건 포함)</li> <li>예산결산심사(5일 / 2022년도 제3회 추경, 2023년도 본예산, 2023년도 단양군 기금운용계획안)</li> <li>조례안심사(3일 / 23건 ⇒ 원안18, 수정4, 부결1)</li> <li>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li> <li>2023년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li> <li>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li> <li>2023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li> <li>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li> <li>2023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li> <li>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li> </ul>

계 8회 / 92일

### 의원발의 조례안

연번	의결일자	조례명	발의자	주 요 내 용
1	2022.2.21. 제306회 (임시회)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안	이상훈 의원	화재를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2	2022.7.27. 제309회 (임시회)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제정안	장영갑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단양군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
3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안	장영갑 의원 외 6인	단양군의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이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각종 단양군의회 조례 등에 산재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법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제정
4	2022.10.28. 제311회 (임시회)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 의원 외 6인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복잡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용역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해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조례 개정
5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숙 의원 외 6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 시행됨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조례 개정
6		단양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정안	김혜숙 의원 외 6인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022.1.13.)으로 인사권이 독립된 의회 소속 공무원을 규율하는 별도의 행동강령(규칙)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 제정



연번	의결일자	조례명	발의자	주요 내용
7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장영갑 의원 외 6인	단양군의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규정한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과 동시에 회의 운영에 따른 절차 및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효율을 기하고자 함
8	2022.10.28. 제311회 (임시회)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영갑 의원 외 6인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의 제정 · 시행 예정에 따라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상위 규정에 맞게 일부 개정
9		단양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김영길 의원 외 6인	단양군의회와 관련된 각종 안건 등을 협의하고, 의원 상호간의 의견 및 정보교환을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 간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
10	2022.12.29. 제313회 (정례회)	단양군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이상훈 의원	출자 · 출연 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을 줄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11		의정활동비	장영갑 의원 외 6인	「지방자치법」제4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단양군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

건의문 채택

건의문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충북의 최북단에 강원, 경북의 3도 접경에 있는 단양을 포함해 11개 시·군이 함께하는 충북은 그 동안 수도권과 경부선 중심의 국가발전 정책으로 인해 국가발전축에서 소외돼 왔습니다. 아울러 지형적으로도 백두대간이 지나고 바다가 없어 육로와 바닷길을 통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에는 국토의 뼈대를 이루는 백두대간이 품은 소백산, 속리산, 월악산 등 명산이 있고 우리나라 4대강 가운데 남한강과 금강 등 2개의 큰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충북의 남한강과 금강에는 충주댐과 대청댐이 건설돼 이를 기반으로 수도권과 중부권에 거주하는 약 2천8백만 명에게 생명수를 공급함은 물론 각종 산업용수 공급으로 국가 발전의 젖줄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은 2개의 다목적댐으로 인한 한강과 금강 수계 규제와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등 3개의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에 따른 규제, 험준한 산악지형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로 인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어려움 등으로 전체 11개 시·군 가운데 단양을 포함해 절반이 넘는 6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이란 불명예를 얻고 있을 만큼 낙후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해 충북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6조원이 넘는 해양수산부 국가예산의 0.08%인 5십5억원만이 충북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체 6조원이 넘는 해양수산부의 국가예산이 충북을 제외하고 투입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아울러, 2개 다목적댐의 상수원 관리를 위한 면적은 한강 수계 165㎢, 금강 수계 179㎢로, 이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시작된 것은 충주댐은 2002년, 대청댐은 1980년부터로 충주댐 수계는 20년, 대청댐 수계는 40년 이상 재산권 행사가 제약돼 왔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한 단양군민과 충북도민의 분명한 희생입니다.

국토 중심부에서 국가 생태계 보전에 큰 역할을 하면서 그에 따르는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음은 물론, 바다가 없음으로 인한 국가 예산지원의 불균형을 감수해 온 충북을 되살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일은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아울러 한강과 금강 수계에 건설된 충주댐과 대청댐으로 인해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그 동안 단양과 충북이 감내해온 일방적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지원은 지난 시간 단양과 충북이 국가발전축에서 소외돼 겪어온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와 정치권, 중앙정부에서는 충북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단양군민과 충북도민의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단양과 충북의 새로운 도약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상과 지원은 바다가 없고 백두대간이 가로막은 충북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그 동안 남한강의 충주댐과 금강의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보호를 위한 일방적 희생으로 불균형 상태에 있는 충북을 회생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은 단양과 같은 충북의 작은 지역의 소멸을 막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와 정치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루속히 제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3만 단양군민의 의견을 모아 건의 드립니다.

2022년 9월 19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문 채택

건의문

(안동 ↔ 단양 ↔ 청량리)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과 단양역 무정차  
통과 열차 정차 촉구 건의문



세계적 명품 국가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철도강국시대를 열어가며, 철도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나희승 사장님께 단양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양군민은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단양역 신축은 물론 중앙선 KTX 이음이 개통됨으로써 서울↔단양 간 이동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되어 단양군민 뿐만 아니라 단양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고 있음에 다시 한 번 원희룡 장관님과 나희승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양은 충북, 강원, 경북의 3도 접경지역에 위치하면서 역사 깊은 선사유적과 단양팔경, 남한강(단양강, 충주호), 백두대간의 소백산, 월악산 국립공원 등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만천하스카이워크, 단양강 잔도 등을 새롭게 조성하며 중부내륙 거점 관광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단양은 임야가 전체면적의 83.7%를 차지하며 이에 더해 국립공원, 충주댐과 한강수계 등으로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의 30% 가량이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개발 가능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단양은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산업으로 농업은 물론 2차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유치에도 한계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단양군민은 이러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역의 성장동력을 풍부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에 두고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코로나 이전인 2012년에는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광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 우리 단양은 중앙선 철도와 중앙선 KTX 이음을 연계시키기 위해 그동안 철도테마공원조성, 환상선눈꽃열차 이용객 맞이 철도관광상품 연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중요한 시기, 우리 단양은 중앙선 철도와 KTX 이음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용 중단된 철도를 활용한 관광개발과 단양역을 핵심축으로 하는 관광개발, 보다 진일보한 철도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며, 더욱 더 심혈을 다해 중앙선 철도와 관광산업 발전을 연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우리 단양군민은 중앙선 KTX 이음이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런 바람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현재 단양역에 정차하는 중앙선 KTX 이음 열차는 청량리역을 시종착역으로 하루에 6회 왕복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열차가 청량리역에서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다양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이 점을 깊이 해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앙선 KTX 이음 열차의 시종착역이 서울역이 될 경우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단양 뿐만 아니라 이 열차가 정차하는 원주, 제천, 영주, 안동 등 중부내륙의 다양한 매력을 가진 지역으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서울시민들이 중부내륙권으로 이동하기 위해 청량리역과 함께 서울역도 이용할 경우, 교통편의 향상은 물론 이에 따른 시간절약, 에너지 사용량 감소, 미세먼지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단양을 포함한 중부내륙권으로의 방문객 증가에도 일조함으로써 철도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단양(28,014명)을 포함한 안동(155,725명), 영주(101,332명), 제천(131,816명), 원주(359,888명) 지역 77만여 명의 서울 이동에 따른 교통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단양을 포함한 중부내륙권은 전형적 쇠퇴 지역으로 고령화의 문제를 안고 있어 특히, 지역에서 해결이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울지역 곳곳에 있는 대형병원의 이용이 많은 실정입니다. 중앙선 KTX 이음을 통해 서울역까지 간다면 단양을 포함한 이들 지역 주민들이 청량리역에서 서울 서남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중앙선 KTX 이음의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은 그동안 국가 발전축에서 소외돼 왔던 단양을 포함한 중부내륙권 주민들의 교통접근성을 서울의 서남부 지역까지 확대해 줌으로써 이들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일정 부분 해소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향해 가는 제20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비전을 실현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중앙선 KTX 이음 열차의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 촉구 건의는 지금까지 충주댐과 한강수계, 국립공원 규제 등으로 고통을 겪어온 것은 물론 국가 발전축에서 소외돼 왔던 단양군민의 의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앙선 철도를 공유하고 있는 중부내륙권의 철도교통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건의 드리는 사안입니다. 이를 널리 살피시고 적극 검토해 주셔서 보다 빠른 시기에 이뤄주시길 바라는 단양군민의 의견을 모아 건의 드립니다.

2022년 10월 7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문 채택

건의문

## 대강면 두음리 석회석 광산개발 반대 건의문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조성 등으로 충청북도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단양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남다른 관심으로 고민을 함께하고 계시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님께 단양군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단양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단양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이를 적절하게 개발 · 활용하여 괄목할 만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뤄 왔습니다. 지난 30여년 우리 단양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충청북도는 물론 중부내륙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수 감소, 지역경제 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꿈을 안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시기, 청정 단양에 새로운 광산개발이라는 악재로 인해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광산개발 예정지로 알려진 곳이 중앙고속도로 단양 나들목으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대강면 두음리로 이는 두음리나 대강면만의 문제라 아니라 단양군의 남쪽 관문을 지켜야하는 문제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단양 관문에 석회석 광산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MBC 뉴스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석회석 지질대가 통과하는 단양군에는 이미 17곳의 광산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거대 시멘트사 2곳이 입지해 있는 매포읍 지역에는 광산이 6개소나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민은, 매포읍 지역이 1964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이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지난 58년의 기간 동안 광산개발과 석회석 관련 산업으로 인해 누적되어온 자연환경 파괴, 발파소음, 비산먼지 등의 환경피해, 재산권 피해, 주민 건강권 침해 등으로 고스란히 고통을 겪어오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광산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어느 곳이든 그 주변은 사람과 동물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양지역 곳곳이 기존의 광산개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청정 지역으로 남아있는 대강면 두음리에 새로운 광산개발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군 대강면 두음리는 중앙고속도로 단양나들목과 접해있는 곳이고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이 높은 교각으로 지나며 고속도로 위에서도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단양의 상징인 단양팔경 가운데 사인암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길목으로 지금까지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광산개발로 훼손하고 소음과 먼지로 주민이 고통 받고 결국에는 살 수 없어 떠나야하는 지역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두음리와 대강면민, 더 나아가 청정 단양, 관광 단양의 관문을 지켜야만 하는 단양군민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2022년 세상은 힐링과 웰빙을 외치고 생존을 위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를 힘차게 시작한 도지사님께서도 도민과의 약속에서 ‘누구나 오고 싶은, 머물고 싶은, 충북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오고 싶고 누구나 머물고 싶은 단양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청정 단양, 관광 단양의 남쪽 관문인 대강면 두음리에 새로운 광산개발은 절대로 현실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두음리 주민과 대강면민, 더 나아가 단양군민의 의사를 모아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대강면 두음리 광산개발을 결연히 반대합니다. 도지사님의 넓은 안목과 깊은 통찰로 대강면 두음리가 앞으로 10년, 10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청정 지역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질 수 있도록 광산개발을 저지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 드립니다.

2022. 11. 7.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5분 자유발언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단양군 농산물 판매장 등  
확충 방안 마련 촉구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4. 1.)  
조성룡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오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영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간 1천만 관광객이 찾는 중부내륙 제일의 관광도시의 위상을 넘어 한 단계 더 높은 비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읍과 단성면, 대강면, 적성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성룡 의원입니다.

제30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 한 해가 1분기를 뒤로하고 4월의 첫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봄기운은 완연한데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서민의 삶 또한 녹록치 않은 힘든 현실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겨우내 모진 바람과 매서운 추위를 굳건히 이겨내고 어김없이 새로운 시작을 품은 듯 희망의 꽃망울을 터트리고 피어나는 봄꽃처럼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3만여 군민의 삶이 화사하게 피어나길 응원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단양군 농자 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실현을 위해 단양군 지역의 농산물 판매장 확충 방안 마련과 활성화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농 · 특산물 판매장소 확충이 절대 필요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해소하고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농산물 유통 · 판매 실적 통계를 보면,

먼저,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운영을 위해 연간 5천만 원 예산으로 전국 축제장과 행사장, 대도시 자매결연처, 국내 식품 박람회 등을 직접 방문하여 발품을 판 결과 연평균 10억 원 이상의 거래 판매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됩니다.

또한, 관내에 입점한 중앙고속도로 단양팔경 휴게소 상 · 하행선 농산물판매장과 소노문 단고을 판매장, 그리고 온라인 판매 등으로 지난해 약 16억 원의 지역 농 · 특산물을 판매 실적을 거뒀으며, 최근 3년 동안 집계하면 평균 약 13억 원의 농 · 특산물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부단한 노력으로 수고를 해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민생 현장에서 듣고 있는 목소리는 “단양을 찾는 연간 1천만 명 관광객을 농 · 특산물 소비 고객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는 무엇보다 농 · 특산물 판매장 부족이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 영월군에서는 우리 군을 방문하는 1 천만 명 관광객을 영월군으로 유입하기 위해 단양역 전광판에 영월군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가 우리 군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많은 관광객이 단양을 찾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호기를 지역 내 관광 소비뿐만 아니라 농 · 특산물 판매와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함은 당연지사입니다.

물론, 기존 서울 · 부산 등 주요 대도시를 겨냥한 단양홍보와 농산물 판매 활동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기존 상권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양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장소를 물색하여 농 · 특산물 판매장소를 확충하는 노력이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공판장, 농산물유통센터 등 지역 내에 중 · 대규모의 다양한 농산물판매장 검토 및 설치를 촉구합니다.

단양에 로컬푸드직매장이나 농산물공판장, 농산물유통센터 설치를 제안하면 “경쟁력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지역 여건상 가당키나 하겠어?”라는 반문이 되돌아오기 일쑤입니다.

현대그룹 故정주영 회장의 불굴의 도전 정신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이봐 해보기나 했어?” 명언을 되새겨 보면서 타 자치단체의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며칠 전 본 의원이 담당 부서와 함께 현지 견학한 충남 청양군 사례로 국비 10억 원, 군비 11억 원 등 총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로컬 푸드직매장」입니다.

이곳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2017년부터 시행한 농산물 직거래의 건전한 확산과 이용 촉진의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정된 우수 농산물 직거래 인증사업장 28개소 중 한 곳입니다.

청양군은 우리 단양군과 인구의 규모는 물론 칠갑산, 칠갑호수 등 보유하고 있는 자연경관도 비슷하며, 전체인구 약 3만 명 중 농업종사자가 46.1%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농산업구조 또한 비슷합니다.

청양군의 지역 푸드 플랜은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푸드 순환시스템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관광객이 즐겨 찾는 주요 관광 지점에 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1년에 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직매장을 이용할 정도로 활성화된 주요 성공사례입니다.

다음은 인구 규모가 2만 3천 명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경매장을 운영하는 경북 군위군의 사례입니다.

군위군에서는 지난 2016년 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전자경매 시스템 등 첨단화된 시설을 완비한 연면적 2,073평방미터 규모의 농산물 경매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직접 경매를 통한 편안한 판매,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도모 및 노동력의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실행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를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세상을 크게 만들 수도, 또 작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 및 소비와 유통의 선순환 시스템 확립을 위한 거점시설인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공판장, 농산물유통센터 등의 설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설치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또한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사안일주의에 안주하고 어려운 지역 현실을 체념하며 앉아서 탓하기보다는 우리에게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부러워하는 단양의 자산이자 귀중한 고객인 1천만 명 관광객이 있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농자천하지대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농특산물 판매 장소 확충과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공판장, 농산물유통센터 설치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분 자유발언

## 「농민 기본 소득」으로 농민 기본권 보장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4. 1.)  
강미숙 의원

늘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단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특히 지금도 보건 일선에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말이면 8대 의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게 별 탈 없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의회 사무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8대 의회에서의 마지막 5분 발언은 단양의 6,800여 농민들에게 시선을  
맞춰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4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농촌의 현실을 들여다보게 되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땅이 있으니, 다른 건 할 줄 모르니, 지금껏 농사만 짓고 살았으니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농촌의 고령화, 대부분 경작지의  
수작업, 농자재 가격인상, 환경변화, 거기에다 제일 걱정인 것은 농촌의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가격 인상, 어렵게 수확을

해도 가격형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판로가 안정되어 있지도 않고, 자칫 힘겹게 농사지어도 경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이 오히려 빚만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에 여기에 대해 알아보니 경기도에서 '농민기본소득'을 단계별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 〈농민기본소득 개념〉

- 농민의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일정한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제도
- 직불금, 농어민 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각각 지급
- 농업 정책에서 약간은 소외되어 있던 여성농민, 고령농민 등의 권리보장
- 농민의 삶의 질 개선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
- 농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 지급

물론 이 정책을 도입 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입한다면 2020년 기준으로 농민 6,800 명에게 매월 5만원씩 3억 4천만원, 연간 약 41억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비효과로 타 시, 군, 나아가 충청북도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짐도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농민 권리 신장과 인간평등의 근본적 농정개혁 추진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농민기본소득」 정책 도입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1. 농민 기본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완화
2.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
3. 수요부족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 선순환 도모
4. 기본소득 원칙인 '개별성'을 보장하여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여 여성농업인의 자주성 보장과 세대분리 등 부작용 해소도모
5.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응원과 격려해주신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에서 각자 건강 잘 지키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5분 자유발언

## 시멘트산업 배출 CO2

### 활용에 대해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7. 19.)  
강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 인사드립니다.

먼저,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조성룡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제 마음속에 함께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이제는 끝나는가 싶던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며 다시 우리를 긴장 시키는 가운데, 농번기와 무더위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예전의 일상을 간절히 그리며 묵묵히 견디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속히 평범한 일상과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함께 기다리며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단양에서의 실천에 대해 시멘트 회사와의 문제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강화되면서 ‘탄소중립’은 전 세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으로 손꼽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의 생활 전반, 산업 전반에 걸쳐 살펴봤을 때,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탄소의 배출량만큼 흡수하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즉 배출된 탄소는 산림복구 혹은 탄소 포집 등을 이용하여 흡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탄소포집 기술을 뜻하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로 이산화탄소를 배출단계에서 포집, 저장, 활용하는 친환경 기술로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탄소중립을 가능하게 할 유일한 기술이라고 할 정도로 탄소중립과 CCUS는 뗄 수 없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상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감축, 최종 2050년까지 국내 순 배출량 0이 목표입니다.

또한 2020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지역 확대에 따라 단양지역의 시멘트 산업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멘트산업 배출 CO2 포집 기술 활용 청정연료 생산기지 기반구축’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9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성신양회에서는 ‘시멘트 산업연계 이산화탄소(CO2) 포집 및 친환경 고 부가가치 탄소화합물 생산 실증’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11월~2025년10월까지 48개월, 총 사업비 390억원, 사업내용은 시멘트공정 CO2포집 활용 저탄소 연료화 즉 메탄올, 수소를 생산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 연료를 소각하면 발생하는 CO2를 포집하여 여러 공정을 거쳐 친환경 연료인 메탄을 더 나아가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탄소중립’의 일환이 되겠죠!

이날 설명은 2025년까지 연구개발 단계로 CO2포집 50톤, 총예산 390억원, 예상필요부지 4,000평, 예상매출액160억원, 고용창출 50~60명으로 상당히 고무적이고 장미 빛 계획이었습니다. 후에 계속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9년, 1단계로 가면 CO2포집 400톤, 예상투자1,300억원, 예상필요부지 14,000평, 예상 매출액 연간870억원, 고용창출 370명, 다음 2단계, 3단계로 가면 그 규모는 훨씬 확대될 것이고 지구온난화를 막을 방법은 ‘탄소 0’, 즉 ‘탄소중립’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CUS기술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산화탄소(CO2) 포집 및 친환경 고 부가가치 탄소화합물 생산’이 연구단계를 거쳐 성공한다면, 우리 단양은 새로운 산업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그럼 시멘트 회사는 무엇을 연료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소문 들어 아시다시피 폐기물을 반입하여 소각하고 그 열로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일시멘트에서 소각하는데 필요한 폐기물 즉 부 연료는 19만2,534톤, 성신양회 13만4,877톤으로 대단히 많은 양의 폐기물이 부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구단계 CO2포집에 필요한 1일 평균 소각량 시간당 0.6톤, 연 5,256톤 보다 훨씬 많은 양을 현재도 소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걱정되는 것은 현재는 필요한 연료량의 20%까지만 폐기물을 소각 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점차 늘려 60%까지 허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물이 단양에서 소각될 것이고 시멘트 회사에서는 CO2포집하여 청정연료 만드니 아무 문제없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세계적으로 CCUS기술 발달은 큰 성과를 이루고 있고, 단양의 시멘트 산업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2) 포집 및 친환경 고 부가가치 탄소화합물 생산'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며, 고용창출이 2025년까지 50~60명 생기게 되는데, 이에 맞춰 새로운 인력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준비와 산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단 한 명도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단양인구 지키기를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 ‘단양군 119 수난구조대’

### 배치 촉구



제312회 임시

제5차 본회의(2022. 11. 11.)

김혜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 군민 여러분!  
조성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성룡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이 자리를 빌려,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서 현장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수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 및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재난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단양의 대표 관광지인 도담삼봉은 지난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관광지 6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연간 1천만 명이 찾고 있으며 단양군은 하늘에서는 패러글라이딩, 지하에서는 동굴 관광, 남한강에서는 카누, 제트스키를 즐길 수 있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단양 한여름 수상 썸머 페스티벌”을, 10월에는 “단양 레이크파크 수상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중보 건설 이후 단양호에는 수상 레저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서 대규모 수상 레저 개발 사업과 연계해 앞으로는 수상 레포츠가 단양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향후 수상 관광객 증가로 수난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단양호 119 수난구조대」 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유람선 7척, 행정선 1척, 199인승 관광선 1척, 어선 18척으로 총 27척의 선박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1994년 충주호에서 발생한 사고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던 아픈 기억이 있고, 2020년에는 일가족 3명이 급류에 실종되는 수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21년에는 도담삼봉 인근에서 운항 중이던 유람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하여 2명의 중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 수난 사고의 발생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38건의 수난 사고가 발생하였고, 수난 사고의 34%인 13 건이 수상 레저활동 중 발생하였습니다. 그만큼 레저활동에 의한 수난 사고는 물놀이 익수 사고나 급류에 의한 수난 사고 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난구조대가 없는 우리 군은 수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천시에 수난 구조정 1대를 보유한 청풍 수난구조대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과 20km 떨어져 있어 사고발생 시 우리 군까지 오는데 25분이 소요되며 수중보 해발수위가 136m 이하일 경우 선저(船底) 충돌 우려로 상류 구간으로 출동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충주시에도 수난 구조정 1대와 화재진압용 특수선인 소방정 1대를 보유한 충주 수난구조대가 있지만, 우리 군과 46km 떨어져 있어 사고 발생 시 우리 군까지 오는데 40 분 내지 70분 정도 소요되며, 매년 동절기 중에는 결빙으로 인해 출동이 불가능하여, 수난 인명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군에 119 수난구조대의 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일 가용 인원 7명, 총 인원 22명인 단양 119구조대는 단지 고무보트 2척만을 보유하고 있어, 수상 레저활동 구역인 단양 수중보로부터 도담삼봉까지 15km 구간을 현 인원과 장비로는 신속한 구조활동 전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군은 매년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 물놀이 장비관리, 주변 환경 정비를 하고 있으며, 단양소방서에서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여 사인암과 남천계곡의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안전요원에 불과하여 수난 구조요원으로서의 전문성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향후 수상 관광객 증가로 수난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단양호 119 수난구조대」 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수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응급처치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인 교육과 자격을 갖춘 119 수난구조대의 배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양역 부근과 단양 보건소 앞 또는 단성면 하방리 행정선 접안 시설 등에 119 수난구조대를 배치하여 수상 레포츠 활동 및 선박 수난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하루 속히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119 수난구조대 배치는 우리 군의 안전한 수상레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수난 구조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신속한 대응으로 출동시간을 현저히 줄이고 그만큼 요구조자의 생존확률도 높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재난 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이고 우리 의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 첫 걸음의 미중물이 될 「단양호 119 수난구조대」 배치를 관계기관에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우리 군의 적극적인 대응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단양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군정질문



김혜숙 부의장

### 보건의료원 건립

김혜숙 의원은 단양군수에게 '보건의료원 건립 등 의료서비스 확충은 군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군수 공약사안인 보건의료원의 도립화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군수는 보건의료원의 도립화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우선적으로 응급의료기능을 갖춘 군립보건의료원을 24년도 상반기 개원하여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장영갑 의원

### 시멘트 기금과 군수 공약사업인 폐기물 반입세

장영갑 의원은 군수에게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시멘트 기금과 군수 공약사업인 폐기물 반입세가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군수는 현재까지의 시멘트 기금 운영 현황 및 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위한 제반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관련 용역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영길 의원

### 강변도로의 일방통행화 추진

김영길 의원은 민원과장에게 '고수대교~단양고등학교를 잇는 강변도로의 일방통행화 추진방안 또는 계획'과 '시내 주간선도로 장기주차에 대한 주차단속계획 및 최근 1년간 주차 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문했다.

이에 민원과장은 강변도로 일방통행과 관련하여 경찰서와의 협의 및 교통전문기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주간선도로 단속 기준 및 향후 주차 단속 계획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 군정질문



강미숙 의원

### 석회석신소재연구소

강미숙 의원은 단양군수에게 '석회석신소재연구소가 2003년 설립된 이후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뚜렷한 성과가 없고 군비 출연금이 계속 투입된 상황에서 앞으로 석회석신소재연구소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군수는 현재까지 석회석신소재연구소의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연구소 본연의 소재연구와 더불어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시백 의원

### 향토문화와 관광산업

오시백 의원은 단양군수에게 '축제는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생활에 역동성을 부여하며 향토문화와 관광산업 발전 기여에 궁극적 목적이 있기에 일부 단순 반복적인 행사는 지양하고 이벤트성 행사를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단양군수는 기존 행사들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설명하고 향후 다각화된 방법으로 축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상훈 의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평가

이상훈 의원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평가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투자계획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자치행정과장은 설문조사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인구감소 원인과 대응수요를 파악하고,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를 주축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답했다.

## 단양군의회 모의 의정

학생들에게 모의 의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하기 위한 모의 의정 체험 : 4회



2022.7.11. 매포중학교 모의 의정 체험



2022.7.11. 매포중학교 모의 의정 체험



2022.7.18. 단양중학교 모의 의정 체험



2022.7.18. 단양중학교 모의 의정 체험

### 신청방법

- 단양군의회 직접 신청: Tel) 043-420-3016 / Fax) 043-420-3019
  - 단양진로체험지원센터: ‘꿈단지체험’ 프로그램 신청 TEL) 043-422-1389 / Fax) 043-421-2941
- ※ 모의 의정 체험 시 단양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생방송 송출 및 녹화분 홈페이지 게재  
<단양군 청소년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danyang.go.kr/ch/main.do>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회기운영

본회의 운영



제3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9.19.)

특별위원회 운영



제313회 정례회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2022.12.2.)



제311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2022.10.25.)



제313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2022.11.30.)



제313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2022.11.28.)



제311회 임시회 주요사업장현지점검 특별위원회(2022.10.20.)

행정사무감사

제310회 정례회 2022.9.20.~9.28.



개회식



장영갑 의원



김영길 의원



강미숙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의원



김혜숙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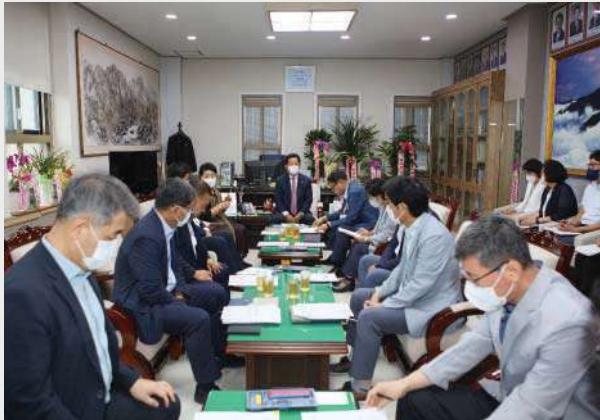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제311회 임시회 2022.10.19.~10.24.



의원간담회

지역 현안문제 및 군정 주요업무 논의를 위한 의원간담회 개최: 24회



의정역량 강화 교육 실시

군의회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의정 연수 및 교육: 4회



이해충돌방지법 교육(2022.8.2.)



2022년 단양군의회 의정연수(소백산자연휴양림) / 2022.8.30.



### 지방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의정역량강화 벤치마킹: 5회



기타 행사



제9대 단양군의회 개원식(2022.7.4.)



제9대 단양군의회 개원식(2022.7.4.)



제7회 단양군 6.3 농아인의 날 기념식(2022.7.8.)



2022 제16회 단양마늘축제(2022.7.22.)



2022 새마을문고 피서지 문고 개소식(2022.7.25.)



시루섬의 기적 50주년 행사(2022.8.19.)



2022 단양포럼 심포지엄(2022.8.20.)



2022 을지연습 현장격려(2022.8.24.)



추석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2022.9.7.)



추석 명절맞이 군·소방대원 위문(2022.9.8.)



충북장애인 도민체육대회 격려(2022.9.16.)



2022 단양군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2022.9.20.)



3도 접경면 회합행사(2022.9.23.)



2022 단양군 생활체육대회(2022.9.24.)



대충대종사 제29주기 열반대제(2022.9.28.)



단양군의회-서대문구의회 간담회(2022.10.5.)

기타 행사



제24회 온달문화축제(2022.10.7~10.9.)



2022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모금캠페인(2022.10.13.)



매포읍 이주 30주년 기념행사(2022.10.14.)



제26회 단양군의회의장기 게이트볼 대회(2022.10.19.)



제58회 단양군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2022.10.31.)



제8회 단양군의회의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2022.11.7.)



제94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2022.11.29.)



제1회 단양군의회의장배 파크골프 대회(2022.11.26.)

# 2022년 제9대 단양군의회 신문스크립

동양일보

의장 조성룡 · 부의장 김혜숙

9대 단양군의회

단양군의회는 4일 30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9대 전반기 단양군의회 의장단 선거를 해 의장에 재선인 조성룡(66·국민의힘·단양군가 선거구) 의원을, 부의장에는 김혜

숙(58·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했다.

9대 단양군의원은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3명 등 모두 7명이다.

조성룡 의장은 “군민 중심으로 열린 의회, 현장 중심의 실천 의회,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적 선진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단양 장승주 기자 ppm6455@dynews.co.kr

11.3 X 4.3 cm

大田日報

단양군의회 청소년 모의 의정 체험



[단양] 단양군의회가 최근 3층 본회의장에서 청소년 모의 의정 체험을 진행했다. <사진>

이날 청소년 모의 의정 체험에 참여한 지역 청소년들은 지방의회 의원과 진행기관 부서장 역할을 맡으며, 실제 의회 의정 운영을 체험했다.

모의 의정 체험은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5분 자유발언, 안건 상정, 토론을 거쳐 표결에 이르는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군의회는 오는 18일에도 단양중학교 학생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모의 의정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성룡 의장은 “이번 모의 의정 체험을 통해 소통과 존중을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지방의회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성장하여 단양의 미래를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이상진 기자

6.7 X 13.2 cm

2022년 07월 15일 (금)  
15면 지역

忠清日報

군민 꿈 위해 100일간 쉼 없이 달렸다

단양군의회, 의정 성과 발표

KTX-이음열차 서울 연장 운행  
단양역 정차 등 33개 안건 처리

충북 단양군의회가 지난 12일 개원 100일을 맞았다.

군 의회는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의회’란 의정 목표로 군민 중심의 선진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비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와 ‘충강선 KTX-이음’ 서울역 까지 연장 운행과 단양역 통과 열차 정차 촉구 등 2개 건의문을 제택·견의했다.

의회는 이달까지 경례회 1회, 임시회 2회를 열어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자 이해증돌 방지법 교육과 특강 의정연수, 선진 지방



충북 단양군의회가 개원 100일을 맞았다. 사진은 9대 단양군의원.

행정 우수시례 테마형 벤치마킹도 실시했다.

실무 사례 중심의 교육과 현지 확인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에 중실했다.

비대면 문화에 발맞춰 군민과 다양한 의견을 소통·공유하는 네이버 블로그와 줌 (Zoom) 활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조성룡 의장은 “지난 100일 동안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현장을 밟아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하고 일하는 선진의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단양=목성균기자

17.5 X 11.9 cm

忠清日報

2022년 09월 20일 (화)  
07면 지역



단양군의회가 제310회 1차 본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제택하고 있다.

단양군의회

/단양군의회제작

단양군의회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본회의서 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수도권 중심 발전으로 지역 소외  
육로·바닷길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해수부 예산 전혀 반을 수 없어”

충북 단양군의회는 10일 열린 제310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그동안 단양을 포함한 충북이 수도권과 경부선 중심의 국가 박격점으로 묶여온 특수한 구조로 인해 단양군의회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으로 인해 단양군의회는 단양군과 충북도를 뒤집어 놓은 충북도 지원에 대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는 등 예산이 단양군과 충북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형적 특성으로 육로와 바닷길을 통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지역 발전에 큰 장애요인을 안고 있는데 비단 단양군과 충북도를 뒤집어 놓은 충북도 지원에 대한 예산이 단양군과 충북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군 의회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내로 빨리 있는 3개 국립공원, 충주·대청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상훈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은 낙후된 단양과 충북도를 뒤집어 놓은 충북도 지원에 대한 예산이 단양군과 충북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단양=목성균기자

17.5 X 15.4 cm

# 2022년 제9대 단양군의회 신문스크랩

## 총청신문



단양군의회-서대문구의회, 상호 발전방안 모색 간담회

방의회 간 상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 의회 의원 14명과 직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 활동 및 의회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양 도시 간의 발전적 교류를 약속했다.

2022년 10월 11일 (화)  
12면 지역



## 충북일보

### “청정지역 두음리에 광산 개발 저지”

단양군의회 임시회서  
전의문 민장일치 채택  
장영갑 의원 대표발의

단양군의회는 7일 312회 임시회에서 장영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강면 두음리 석회석 광산개발 반대 건의문’을 반정 일치로 처리해 충북도에 이송했다.

장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두음리 광산 개발 관련 사업은 어려운 누름이나 대강면 만의 문제를 넘어 단양군의 남북 판문을 지키야 하는 문제로 확대화 됐을고 있다”며 지역 민심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어 “대강면 두음리 광산개발 예정지가 중앙고속도로 단양 나들목과 바로 접해 있는 곳”이라며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이 높은 고작으로 사니고 있는 곳에 위치해 힘들어다보이는 곳”이라며 저지 했다.

그는 “이곳은 단양의 상징인 단양팔경 가운데 사임암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으로 지금까지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는 곳”이라며 광산개발



2022년 11월 7일 (화) 단양군의회

단양군의회 의원들이 대강면 두음리 석회석 광산개발 반대 현수막을 들고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단양군의회

지연환경 파괴, 밭파손,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와 재산권 피해, 주민 건강권 침해 등으로 고통을 겪어오고 있다”고 면밀했다. 그에 대해서 “두음리가 앞으로 10년,

10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청정지역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질 수 있도록 충북도에 광산개발 저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양 / 이형수기자

22.8 X 14.1 cm

## 충북일보



본회의장 건의문 발표 후 ‘중앙선 KTX-이음(안동↔청량리)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과 단양역 무정차 통과 열차 정차 촉구’ 현수막을 든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2022년 10월 11일 (화)  
11면 지역



## KTX 단양역~서울역 연장 운행 촉구

단양군의회, 건의문 철도公 전달  
접근성 개선 방문객 증가 기대

단양군의회가 지난 7일 개최한 310회 2차 본회의에서 ‘중앙선 KTX-이음(안동↔단양↔청량리) 서울역까지 연장 운

행과 단양역 무정차 통과 열차 정차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후 관련 중앙부처와 한국철도공사로 전달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코로나 이후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KTX-이음의 시·종착역을 서울역으로 연장 운행할 경우 접근성이 개선돼 단양

을 포함한 중부내륙권의 방문객 수요 증가와 다양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나아가 단양역에 경차하지 않는 열차가 없도록 해 고령화되는 단양을 포함한 중부내륙권의 현안 과제인 의료서비스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17.0 X 12.7 cm

# 2022년 제9대 단양군의회 신문스크랩

**충청신문** 2022년 11월 30일 (수)  
제 94 차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충청신문** 2022년 11월 30일 (수)  
12면 지역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남한강 단양호 119 수난구조대를 배치해 줄것 촉구하고 있다.  
(사진=단양군의회 제공)

## ‘남한강 단양호 119수난구조대 배치’ 채택

**충북시군의회의장협 정례회**  
**조성룡 군의회 의장 대표발의**

‘제94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가 29일 단양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충북 11개 시·군의회 의장을 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문제를 톤의하고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제반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조성룡 단양군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남한강 단양호 119 수난구조대 배치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조성룡 단양군의회 의장은 “최근 단양군은 충북 레이크파크 트리네스프로젝트와 연계한 수상 관광의 메카가 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단양호에 119 수난구조대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 변화를 안전하게 견인하고 단양과 충북의 안전이 평범한 일상에서 확고히 다져질 수 있도록 단양호에 119 수난구조대를 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단양/장연환 기자  
jh3411@dailycc.net  
11.2 X 16.1 cm

**충청신문** 2022년 12월 21일 (火)  
12면 지역  
**27건 안건 의결·정례회 폐회**

단양군의회는 지난 19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1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본 예산안 등 2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결사항은 2023년도 본 예산안은 43건 46억 6479만 7000원을 감액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등 총 4273억 6827만 9000원으로 확정했다.

단양/장연환 기자 jh3411@dailycc.net  
11.2 X 9.4 cm

**충북일보** 2022년 11월 29일 (화)  
15면 스포츠  
**단양군의장배 파크골프대회 성료**

단양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에서 지역 내 파크골프 동호인 200여 명이 참여한 ‘1회 단양군의회의장배 생활체육 파크골프대회’가 지난 26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동호인들 간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장은 “파크골프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참여자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한다”며 “이 대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신 만큼 승패를 떠나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시간이 됐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5.5 X 8.8 cm

**충북일보** 2022년 10월 21일 (금)  
15면 스포츠  


26회 단양군의회의장기 게이트볼대회 참가자들이 대회를 마친 후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단양군의회

## 단양군의장기 게이트볼대회 성료

**매포팀 우승·대강팀 준우승**

26회 단양군의회의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지난 19일 단양읍 별곡리 단양군 게이트볼 전용구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축하를 위해 단양군의회 전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광웅 단양군 게이트볼협회장의 대회사와 조성룡 단양군의회 의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경기 시작됐다.

단양군체육회 게이트볼협회 회원이며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 대회에는 단양군 8개 읍·면에서 9개 팀 100여 명이 참가해 토너먼트전으로 경기를 진행한 결과 우승 매포팀, 준우승 대강팀, 공동 3위 상진과 어상천팀이 각각 뛰어난 기량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장은 “단양군의회의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어느덧 26돐을 맞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포츠맨십을 발휘한 이 대회를 통해 회원 간의 화합과 단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11.2 X 14.2 cm

# 2022년 제9대 단양군의회 신문스크랩

## 충청매일

### 단양군의회, 의정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지방행정 우수 사례 벤치마킹

단양군의회는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1일 특강 의정연수'와 '선진 지방행정 우수사례 탐방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의정연수는 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대비해 전문강사를 초청해 실무사례를 중심으로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결산심사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지방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전북 전주시 '책기둥 도서관'과 충남 논산시 '연산문화창고'를 방문해 현장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조성룡 의장은 "단양군의회는 단양군이 발전 할 수 있는 대인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태현기자  
11.0 X 6.9 cm

2022년 09월 05일 (월)  
07면 지역

## 충청신문

2022년 08월 04일 (목)  
12면 지역



단양군의회가 지난 2일 단양군평생학습센터에서 소속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단양군의회제공)

## 충청신문

### 단양군의회, 네이버 밴드·줌 활용법 교육

단양군의회는 지난 11일, 단양군평생학습센터에서 소속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네이버 밴드 및 줌(ZOOM) 활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단양군평생학습센터 강사로 활동 중인 윤민정 주민강사가 네이버 밴드의 투표, 일정 공유 등의 특수 기능과 줌을 통한 회의 개최 및 회의 참가 방법에 대한 교육과 모바일 사용법을 함께 교육을 진행했다.

조성룡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

후 일상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비대면 문화가 확산·보편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접근성 높은 네이버 밴드나 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의정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금일 교육이 의원과 직원들에게 유익한 교육이기를 바라며, 향후 비대면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네이버 밴드와 줌을 활용한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정연환 기자 jyh3411@daum.net

11.1 X 7.8 cm

2022년 10월 13일 (목)  
12면 지역

## 단양군의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구체적 사례 중심 강의 진행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한세근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의의 등에 대한 교육 등 지방의회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조성룡 의장은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정연환 기자 jyh3411@daum.net

11.2 X 14.6 cm



## 충북일보

2022년 12월 28일 (수)  
11면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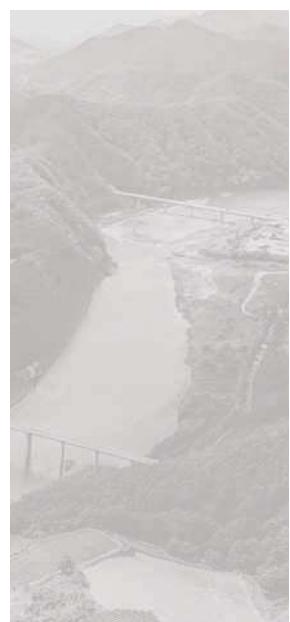
### 단양군의회, 치안 행정 간담회

단양군의회가 지난 26일 단양경찰서를 방문해 주요 치안 시책을 공유하고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취하는 등 치안 행정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군의회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3만여 군민의 24시간을 실시간 안전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112 치안 종합상황실'을 직접 찾았다.

이 자리에서 지역에서 사건 사고 발생 시 신고·접수에서부터 지령 전파, 타 기관과의 업무 공조 체계 가동 등 112 치안 종합상황실 운영 사례를 보고 받았다.

5.4 X 7.4 cm



**2023년  
회기운영 계획(안)**

구 분	회 기	일수	주 요 안 건 (예정)
제314회 (임시회)	1. 31. ~ 2. 3.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li> <li>• 기타 부의안건</li> </ul>
제315회 (임시회)	2. 21. ~ 3. 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점검결과사후관리 특별위원회</li> <li>•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li> </ul>
제316회 (임시회)	3. 28. ~ 4. 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li> <li>•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 · 세출 예산안</li> <li>•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li> <li>•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li> <li>• 기타 부의안건</li> </ul>
제317회 제1차 (정례회)	6. 8. ~ 6. 2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li> <li>• 2022년도 예산 · 재무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li> <li>•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li> </ul>
제318회 (임시회)	7. 4. ~ 7. 1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정질문</li> <li>•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li> </ul>
제319회 (임시회)	9. 5. ~ 9. 1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li> <li>•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 · 세출 예산안</li> <li>•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li> </ul>
제320회 (임시회)	11. 7. ~ 11. 1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023년도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신규사업계획)</li> <li>• 기타 부의안건</li> </ul>
제321회 제2차 (정례회)	11. 23. ~ 12. 19.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li> <li>•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 · 세출예산안</li> <li>• 2024년도 본예산 세입 · 세출 예산안</li> <li>•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li> </ul>

**총 8회기 94일 (정례회 2회 42일, 임시회 6회 52일)  
상반기: 40일 / 하반기: 54일**

※ 본 회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현황

부의장 **김혜숙** <비례대표>

초선

전) (사)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전) (사)대한미용사회 단양군지부장  
전) 단양군청 인사위원  
현) 단양경찰서 경찰자치위원



의원 **김영길** <가 선거구>

초선

전) 단양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전) 충청북도교육청 흥보대사  
전) 단양군청소년수련관 지원협의체 회장  
현) 단성중학교 총동문회장



의원 **오시백** <나 선거구>

재선

제8대 단양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전) 전국한국화학노동조합 시멘트분과 위원장  
전) 성신양회(주) 노동조합 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시멘트산업 특별위원장



의장 **조성룡** <가 선거구>

재선

전) 단성면, 대강면, 적성면 부면장  
전) 단양군 4·19기념사업회 부회장  
전) 단양군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부회장  
현) 월드비전 단양지부 부지부장



의원 **장영갑** <가 선거구>

4선

제5대, 제6대 단양군의회 의원  
제8대 단양군의회 후반기 의장  
전) 단양중학교 운영위원장



의원 **강미숙** <나 선거구>

재선

제8대 단양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부관장  
전)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강사  
전) 영월 세경대학교 미술치료과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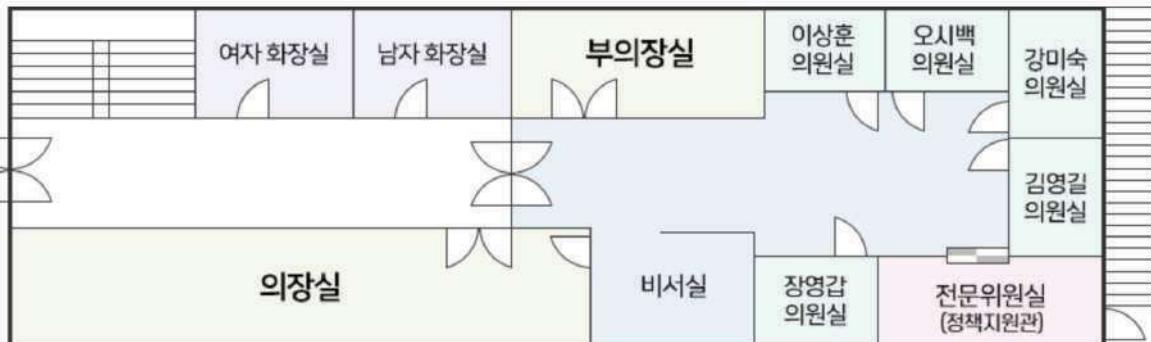
의원 **이상훈** <나 선거구>

재선

전) 단양군청년연합회 회장  
전) 단양청년회의소 회장  
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제천단양지역협의회 위원



## 의회 전화번호



**조성룡** 의장실 T. 420-3000

**김혜숙** 부의장실 T. 420-3001

**김영길** 의원실 T. 420-3006

**장영갑** 의원실 T. 420-3003

**강미숙** 의원실 T. 420-3005

**오시백** 의원실 T. 420-3004

**이상훈** 의원실 T. 420-3002

**부속실** T. 420-3007

의회사무과장 T. 420-3010

전문의원실 T. 420-3020~3021

의정팀 T. 420-3011~3017

의사팀 T. 420-3031~3034

FAX T. 420-3019

## 단양군의회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TEL. 043)420-3011    FAX. 043)420-3019